

‘전북 3.1운동 독립영웅’ 판소리로 만난다

100주년 맞아 이석용·백용성·문용기 등 애국지사 재조명 22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서 안숙선·왕기석 명창 참여 공연

3·1 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북지역 독립영웅의 삶을 조명하는 판소리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1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판소리공연은 22일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판소리공연은 시와 국가보훈처 전북동부보훈지청이 주최하고 광복회 전북도지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판소리공연에는 100년 전 조국을 지키고자 일어섰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전주의 3·1운동을 재조명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번 공연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기부가 모여져 의미를 더하

고 있다.

곽병창 극작가와 김용택·안도현 시인, 신귀백 작가, 김병용 소설가 등 전북을 대표하는 문인들은 재능을 기부하는 마음으로 사설을 작성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인 안숙선·왕기석·방수미·박애리·이자람 명창이 작창과 공연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러 손길이 모아진 이번 공연은 ‘우리의 소리로 100년의 함성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느림한 기상의 의병장 이석용(임실)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백용성(장수) ▲3·1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문용기(익산) ▲자유를 꿈꾼 독

립운동가 백정기(부안) ▲전주 만세운동의 주역인 신흥·기전학교 학생 등 전북출신 애국지사의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창작 판소리 외에도 국립민속극원의 해원살풀이와 풍물놀이패의 풍물 공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힙합댄스와 만세 퍼포먼스 등 부대행사로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열과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고장의 숨은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판소리 공연 포스터.



군산시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위해 시행하는 올해 1기 동네문화카페와 배달강좌를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찾아가는 기타 강좌. <군산시 제공>

군산시, 제1기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진행

‘생활 속 평생학습’ 기회 568강좌 3300명 신청

군산시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위해 시행하는 올해 1기 동네문화카페와 배달강좌가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동네문화카페는 평생학습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상가에서 즐기는 문화강좌다.

지난해에는 276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95개 강좌가 진행돼 시민 2700여명이 참여했다.

신설된 배달강좌는 경로당, 마을쉼터, 아파트관리실 등 공공장소에서 즐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동네문화카페에는 454개 강좌에 수강생 2500명, 배달강좌에는 114개 강좌에 828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강사 409명과 매니저 72명이

소상공인 사업장 513곳에서 강좌를 진행한다.

시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강사 교육 강화, 강좌 정기 점검, 원활한 강좌 진행을 지원한다.

동네문화카페와 배달강좌에 관한 문은 시 교육지원과(063-454-2600)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동네문화카페와 배달강좌 사업이 어려운 군산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을 준다”며 “시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지난 15일 고창읍 동리국악당에서 ‘식량산업 종합계획 군민보고회’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쌀 수급조절 등 미래농업비전 마련

농업인 등 350명 참석 ‘식량산업종합계획 보고회’

고창군이 농생명 산업을 살리기 위해 ‘쌀 수급조절·기타 작물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한 식량산업 미래전략 마련에 나섰다.

고창군은 최근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 식량산업발전협의회 등 지역 농업인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산업 종합계획 군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발표된 종합계획은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지역 식량산업분야(쌀, 보리, 밀, 옥수수, 콩, 팥 등)의 체계적 분석과 지원·투자를 통한 농업 비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건조저장시설(DSC), 미국중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쌀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고, 교육과 가공, 유통을

통해 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제체 육성사업,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을 진행해 벼 이의 식량작물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조직화, 체계화, 규모화 된 유통 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호남권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성과

작년 한해 22억원 매출... 고용·투자 효과도

청년과 퇴직자의 역량있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가 매출과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호남권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 한해 22억6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출 9500만원, 고용 56명, 투자 1000만원의 성과도 올렸다.

세대융합창업캠퍼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경영·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 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을 매칭해 역량 있는 창업팀을 발굴해 창업 전단계계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호남권 주관기관인 전북경진원은 2017년 23개, 2018년 22개 기업을 선정해 소비자반응조사 43회, 교육 259회, 멘토링 147회, 해외시장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특히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으로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전문투자자와 12개 창업기업을 매칭하는 한편 외부투자 유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호남권 ‘2019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에비)창업팀은 2019년 3월 말~4월 초에 지원규모는 20개팀 내외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모집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성인대상 기초한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성인문해율 해소에 주력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초한글과 초·중등교육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익산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행복학교는 문해교육 전문교사에 게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휴대폰 문자, 알파벳, 산수, 미술, 다양한 특별 재량활동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진행된다.

현재 협업을 상시성경로당,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여산면 가람어울림센터,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황등도서관 등 10개 지역에서 19개 반을 운영해 23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다.

초·중등과정 교육(문해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익산시평생학습관(063-859-5155)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익산지역 식품창업 희망 청년기업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 랩(Lab)’을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39세 이하 청년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예비 창업인에게 맞춤형 체험·실습 교육은 물론 시제품 시식 평가회와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청년식품창업 랩은 2017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25개 팀

61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개 팀이 창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식품제조 장비를 추가로 들여 예비창업자를 돕는다고 밝혔다.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획득과 박람회 참가도 지원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정읍시, 28억원 투입 자활근로 8개 사업 추진

정읍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구축과 자활 능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8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위탁사업은 정읍지역자활센터와 산영농조합법인을 통해 23억원을 투입해 100여명의 인원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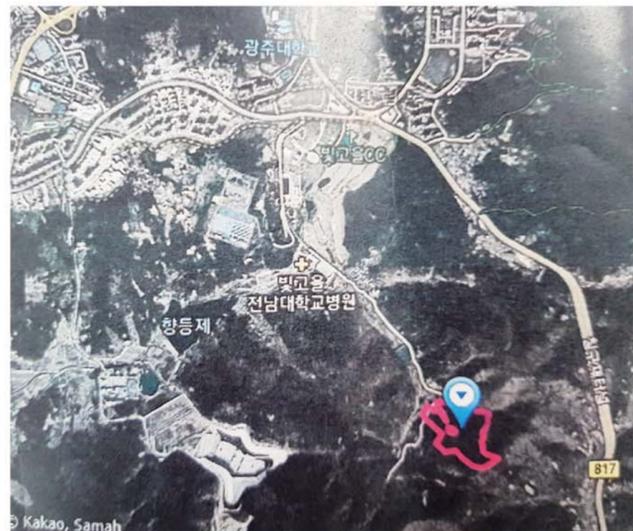
또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돼 50명의 사업 참여자를 읍·면·동에 배치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활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자활참여자가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